

공동체 소식

예수 성심 성월 안내

예수 성심 신심의 목적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예수 성심과 함께 또 예수 성심을 통해 사랑으로 보답함으로써 첫째 계명(신명 6,5; 마태 22,37-38; 마르 12,29-30; 루가 10,27)을 더욱 효과적이고 온전하게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심 신심은 단순히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목숨까지 바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예수 성심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응답은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보답**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 동안 매일미사 3쪽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매미사 전과 가정에서 바칩니다.

교구대회 사전 본당모임 연기

- 6월 9일 오후 1시 나자렛관

주일학교 교리 방학

6월 2일(일)부터 8월까지 방학합니다. 개학은 추후 공지합니다.

미사/사제연수 안내

- 6월~8월 본당 토요신심미사 없습니다.

- Holy Trinity본당에서 6월부터 8월까지 평일 06:30, 토요일 07:30미사를 Stone Chapel에서 봉헌합니다.

- 북미/중미 교구 사제 연수로 6월 11일(화), 12일(수), 13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사제연수 기간 : 6월 10일(월)~14일(금)

사제연수 장소 : Alaska Anchorage 한인성당

Holy Trinity 본당의 날 행사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 HT본당의 날입니다.

14일(금) 오후 6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합니다.

우리도 애찬조에서 음식 간단히 준비하여 동참합니다

교우분들 함께 하시어 본당의 날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6월 구역모임 안내

1구역 - 8일(토) 오후 7시, 정연숙 막달레나 가정

2282 Carriage Dr. Lenexa KS 66215

2구역 - 15일(토) 오후 7시, 김호원 요한 가정

12721 England st. Overland Park, KS 66213

3구역 - 15일(토) 오후 7시 30분, 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14205 Rosehill st, Overland Park, KS 66221

4구역 - 29일(토) 오후 7시, 차상욱 펠릭스 가정

15334 Riley st, Overland Park, KS 66223

2차 헌금 안내

- 6월 9일에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CCC, 미디어를 통한 선교 후원)을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야,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감영진 라파엘, 이우석 프란치스코, 천주영 에스델 (27가정)

전례 성가

	입 당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141	211	163	137
차 주	142	217	180	493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세실리아)	차호섭(요셉) 조지연(마리아)
차 주	김명은(안젤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네스)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정예진(한나)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정원(안젤라) 김정훈(로베르토)

헌금 봉사자

금 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차 주	김태중(예레미야), 강승호(아오스딩)

애찬 봉사자

금 주	6조: 문문주, 장유정, 김희진
차 주	7조: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6월 2일은 2구역입니다.

매 미사 후 뒷정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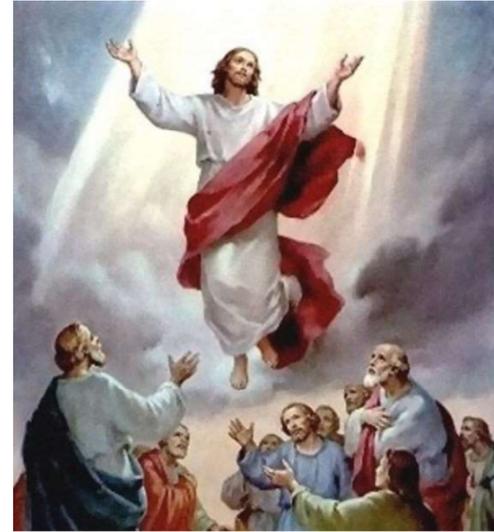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www.kckcatholic.org
korean1481@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림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루카 24, 50-53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1,1-11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 답 송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17-23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4,46-5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릴레이 경기



육상경기 종목 중에 릴레이 경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구간에서 몇 명이 한 조가 되어 차례로 바통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경기로서 이어달리기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릴레이 경기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구원 사업을 마치신 예수님은 성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룩하신 구원에 모든 이가 참여하도록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 곧 죄에서 돌아서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분의 증인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 파견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요한 3,19). 이런 세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제자들은 '위로부터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복하시면서 '위로부터의 힘'을 전해주셨고, 그 힘은 성령의 강림으로 강화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 용감하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통'은 수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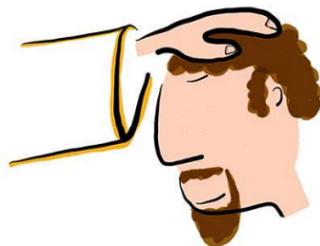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세례를 받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1582)의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당신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이 세상을 바라본다. 당신의 발로 그리스도는 좋은 일을 하러 나간다. 당신의 손으로 그리스도는 축복

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그랬듯이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도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몸은 움직이려면 머리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일치 안에 머물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지니신 엄청난대 능력, 곧 '위로부터의 힘'을 나누어 받아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뜻으로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라간 사람은 그분이 먼저 도달한 종착점에서 반갑게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베드로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마주 볼 순 없단다.

떠나는 것이 선물이 될 거라는 죽음이 시작이라는 보이지 않으나 볼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마주 보게 될 거란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카 24,5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기도는 나의 힘

호기심 많았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니?"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버지께 대답하였습니다. "기차요! 비행기요! 아니다! 음. 빛이요!"라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럼 뭐가 가장 빠른데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사람의 생각이지!" 빛은 초속 30만 km인데 그 속도로 명왕성까지 59억 km를 간다면 327분이 걸리지만, 사람의 생각은 1초도 걸리지 않는단다. "아들아!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뜻을 아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교리시간에 배웠어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래 맞아! 하느님께서 생각하시고 느끼시는 것을 인간도 똑같이 느끼도록 창조하신 것이지!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꿈은 한계가 없단다. 그럼 또 질문할게! 하느님과 인간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하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설명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로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대부분은 이를 수 없단다. 다만 어떤 것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으로 이뤄낼 수도 있겠지. 가령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야." 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우리 매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하지? 하느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듣고 계신단다. 그러니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열심히 기도

하면 너의 소망을 들으시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전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신앙교육 덕분에 사춘기를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힘내라고 건네준 지인의 편지에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치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적게 기도하는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의지를 보이고 상을 주시는 것이지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서 위안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위안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영혼에 그토록 소중한 그분께 말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포용하십시오."

너무나 감동적인 오상의 비오 신부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때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의 어리석음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길에 후회보다는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는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시련에 넘어지더라도 저를 일으켜 주시는 하느님께서 제 앞길을 지켜 주시고 곧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임두빈 안드레아 | 생활성가 가수

복음묵상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루카 24.49)



캘리그래피
원회진 레아